

사회유대의 신념요인이 사이버 불링 가해 현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that Faith Factor of Social Bonds Have on Cyber Bullying Phenomenon

이영식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Young-Sik Lee(young@k1.ac.kr)

요약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사이버불링 | 사이버 범죄 | 사회유대 | 신념 | 학교폭력 |

Abstract

A cyber crime has been evolving, as other crimes have. Beyond physical damages such as financial crimes in the cyber world, it has evolved into psychological forms like cyber-bullying. In today's crimes, measures that consider psychological effects of crimes are highly regarded in that fear of crime is considered as well as visible crimes. Accordingly, cyber bullying, which causes psychological damages, needs to be treated very importantly.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crime is caused by different circumstances from the real world, measures should be taken in different aspects. Rather than physical damages, which can be found in the conventional crimes, cyber crimes cause psychological damages, so the effect that has on inflicting should be specified.

Especially, in the environment that virtual reality is ubiquitous through smart phones,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measures by considering all the causes of general cyber crimes.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d what affects cyber bullying by focusing on personalized faith factor among social bond theory, which can control cyber crimes. As a result, self-controlling faith was verifi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cyber bullying, so faith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personalized environment.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space and education of humanism, which can affect individuals' faith should be emphasized.

■ keyword : | Cyber-bullying | Cyber-crime | Social Bonding | Beliefs | School Violence |

I. 서론

정부의 4대약 체결은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 끝에 많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경찰과 관련된 중점적 정책인 학교폭력근절활동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대책들을 보여주었고 결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한 1차 조사(3월 23일~4월 20일) 때보다 0.2% 포인트 줄어들었다. 2012년 첫 조사에서는 12.3%로 높게 나왔으나 2012년 2차 때 8.5%, 지난해 1차 2.2%, 지난해 2차 1.9%, 올해 1차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 갈취(7.6%) 순이었다. 피해 응답 건수는 1차 때의 129,000건에서 10만 건으로 줄어 구체적인 유형에서도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 피해 응답 비율은 2012년 2차 조사 당시 5.7%에서 2013년 1차 7.2%, 올해 1차 9.2%, 올해 2차 9.9%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통적 학교폭력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이버 불링 같은 개인화된 인터넷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성식(2011)에 의하면 오프라인 현실과 비교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부모에 대한 영향이 적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사회통제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한 영향의 통제보다 행위자 자신의 개인가치와 판단이 더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사회유대의 자기신념이 사이버 불링이 사이버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불링의 개념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이란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다. 사전적 용어로 email이나 문자 메시지로 하는 “verbal lynching(말로 가하는 린치)”, 인터넷상(Cyber)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bullying)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3].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의 3에서도 사이버 불링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4].

‘사이버 불링’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 등으로 사이버 범죄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5].

사이버 불링은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24시간 사이버 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이버 범죄와는 다르다. 또한 SNS와 카카오톡 등은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는 표시 기능이 제공됨에 따라 즉각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불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일명 사소한 괴롭힘인 사이버 왕따 수준을 넘어 개인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

사이버 불링의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경찰청이 게시하여 대표적으로 나눈 유형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플레이밍, 안티카페, 사이버 명령, 사이버 왕따 놀이이다. 상세한 구분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6].

표 1. 사이버 불링의 유형

사이버 불링 유형	정의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비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이미지 불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아이디 도용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 사이버머니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감옥	단체로 욕설 및 괴롭힘이 집행되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가 괴로움으로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힘을 계속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초대되면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빠져나가버리거나 친구 신청을 배제하는 행위
플레이밍	특정인을 자극해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안티카페	페이스북, SNS 모임 기능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모임을 만들고 피해자를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시키는 행위
사이버 왕따 놀이	사이버 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반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불링은 아무래도 발신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복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는 권력 지향적 형태를 가진다. 이는 가해 행동을 통해 위협적이거나 굴욕을 줌으로써 힘을 갈망하는 형태를 띠 수 있는데 다른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 때문에 동기화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오락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놀이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연적이거나 실수로 사이버 불링에 가담할 수 있다. 단순히 글을 퍼 나르거나 링크하는 형태

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들의 특성 등은 개인화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자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사이버 불링 자체 행동의 결행됨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이버 불링과 사회유대 변인 중 신념에 대한 논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사회유대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영식(2014)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대학생들의 사회유대가 사이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설명한 사회유대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사이버 불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Young(1997)은 인터넷 중독이나 통신상의 역기능적 측면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은 가족의 지지가 약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나아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족의 지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7][12]. 윤영민(2000)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약한 사회유대를 형성한 청소년은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장준오(2004)의 경우 사회유대적 측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 부족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12]. 한중옥(2004)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낮고 학교생활에 관여가 적은 청소년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2].

최부용(2008)의 사이버 일탈과 사회유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법 체계에 대한 신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사회유대와 사이버 비행 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이성식(2011)은 사회유대와 사이버 공간상의 특성에 기인한 설명으로 사이버상의 사회유대에 대하여 오프라인 현실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실에서의 부모에 대한 영향이 적게 됨으로서 두 세상에 대

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사회통제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고 하였다[12].

이영식(2014)에 의하면, 사회유대가 강한 대학생일수록 사이버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것은 자아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제시하였다[12].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한 영향의 통제보다 행위자 자신의 개인가치와 판단이 더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8].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사회유대이론이 사이버 불링 가해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12].

III. 연구설계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개인 성향이 반영되는 사회유대 요인 중 신념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위에 보다 낮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예상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영식(2014)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대학생들의 사회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가설 : 대학생들의 사회유대 요인 중 신념은 사이버 불링가해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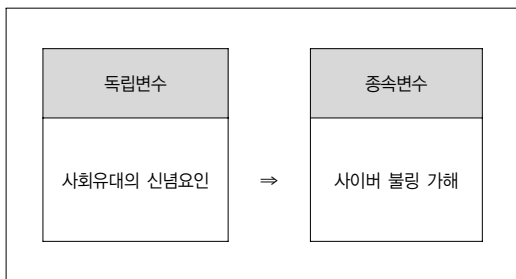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의 모형

2. 변수의 측정

1.1 사회 유대의 신념

이 연구의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의 4가지 요인 중 신념의 중요성에 따라 신념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졌다.

허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신념은 “인습적인 가치를 얼마나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법을 지키겠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른 측정은 강익희(1986)과 최부용(200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9][11].

구체적으로 “성공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은 괜찮다.”, “발각되지 않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보통 나쁜 일이라도 피해주지 않는다.”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상 역코딩 방법의 처리를 거쳐 분석되었다.

1.2 사이버 불링

종속변수인 사이버 불링 경험은 김은경(2012)의 설문지를 토대로 측정되었다. 본 측정 설문은 최초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Hinduja와 Patchin(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과 심진숙(2008), 이성식(2010)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최초 구성된 설문의 경우, 요인 값이 떨어짐에 따라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김은경의 설문만이 남아 그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는가’ 등으로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는 척도를 사용하였다[10].

설문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런 편이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1.3 신뢰도

각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신념은 0.776으로 불링가해는 0.940으로 확인되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의 관계들은 하부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신뢰도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Cronbach's α
신념	3	.776
사이버 불링 가해	13	.940

1.4 연구 방법 및 표본 구성

대학생의 사회적 유대와 사이버 범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0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하여 311부를 회수하고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56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와 가설의 검증

1. 분석결과

1.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75명으로 68.4%, 여성은 81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10대가 가장 많은 131명으로 51.4%였으며, 20세 이상 25세미만의 경우 120명으로 46.6%, 26세 이상은 가장 적은 빈도 5명으로 2%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에 37세가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을 진학한 경우이다.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은 253명으로 98.8%를 차지하였고 기혼의 경우 3명으로 1.2%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32명 90.6%였으며 전문대학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24명으로 9.4%였다. 재학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42명으로 55.5%였고, 2학년이 56명으로 21.9%였으며, 3학년은 20명으로 7.8%였다. 마지막으로 4학년의 경우 38명으로 14.8%를 나타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55명, 전남 46명, 서울 38명 순이었다.

인터넷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정보 검색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SNS가 19.9%, 게임이 16.4%, 교육 및 학습이 12.1%, 채팅이나 메신저가 7.4%, 쇼핑이 2.0%, 이메일이 1.6%를 기타는 2.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처벌 경험이 없는 경우가 247명으로 96.5%였으며, 처벌 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으로 3.5%를 차지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5 68.4
	여성	81 31.6
연령	18세 이상-19세 미만	131 51.4
	20세 이상-25세 미만	120 46.6
	26세 이상	5 2
결혼여부	미혼	253 98.8
	기혼	3 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232 90.6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24 9.4
재학학년	1학년	142 55.5
	2학년	56 21.9
	3학년	20 7.8
	4학년	38 14.8
거주지역	서울	38 14.8
	전북	55 21.5
	전남	46 18.0
	경남	3 1.2
	경북	1 .4
	강원	30 11.7
	경기	66 25.8
	충남	6 2.3
	충북	5 2.0
	제주	6 2.3
인터넷 사용목적	교육 및 학습	31 12.1
	이메일	4 1.6
	정보검색	98 38.3
	채팅이나 메신저	19 7.4
	SNS	51 19.9
	게임	42 16.4
	쇼핑	5 2.0
사이버 범죄 처벌경험	없다	247 96.5
	있다	9 3.5

2. 가설의 검증

표 4. 신념요인에 따른 사이버 불링 가해 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사이버 불링 가해	-.276	.048	-.340	-5.755**
상수: 2.632** F= 33.118 **R ² = .115				

주: *p<.05, **p<.01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과 사회유대의 신념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R²값이 .115로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의 각 요인들은 사이버 범죄를 11.5%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사이버 불링 경험 가해 경험은 유의 수준 0.01에서 사이버 범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념요인은 사이버 불링 가해에 -.340 만큼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신념요인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신념요인은 사이버 불링 가해의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

V.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범죄인 사이버 불링을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여 사이버 불링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미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정된 PC가 아닌 개인화된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공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 원인론이

나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원인론을 가지고 개인화된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사이버 범죄 원인론에 대한 확정적 요인의 직접적 원인 규명을 토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개인화된 환경에서 사실상 범죄 심리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유대이론 중 자기 신념화에 중점을 두어 사이버 불링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을 단순히 신중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정의하기보다는 사이버 범죄의 새 유형으로 분류시키고 각종 스마트 기기와 사이버 공간 상의 활동에 대하여 사이버 공간 상의 인성교육을 통해 개인화된 신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9008>, 검색일자: 2014.12.06.
 [2] 이성식, “중학생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179-200, 2006.
 [3] <http://polinlove.tistory.com/8413>, 검색일자:2015.07.06.
 [4] <http://www.moleg.go.kr/>, 검색일자: 2015.07.06.
 [5] <http://tip.daum.net/openknow/70226714>, 검색일자: 2015.07.06.
 [6]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8413>, 검색일자: 2015.07.06.
 [7]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8.
 [8] 이성식, “중학생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179-200, 2006.

- [9] 강익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연구: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설문지; 최부용, 앞의 논문, 설문지.
- [10] 김은경,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42, 2012.
- [11] 최부용,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유대 강도가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72, 2008.
- [12] 이영식,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대학생들의 사회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6호, pp.121-143, 2014.

저 자 소 개

이 영 식(Young-Sik Lee)

정회원



- 1986년 : 한국항공대학교 통신 정보공학과 졸업
 - 1996년 : 경희대학교 정보통신 학과 졸업(공학석사)
 - 2005년 : 관동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박사)
 - 1992년 ~ 1995년 : 경북대학 전자계산과 전임강사
 - 1997년 ~ 2001년 : 동우대학 컴퓨터학부 조교수
 - 2001년 ~ 현재 :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이버범죄, 신종범죄, 청소년비행 등